

● **연중 제 13주일 강론**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후회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는 어느 신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세례 받은 것을 도로 무를 수는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다보면 더러는 슬쩍슬쩍 거짓말도 좀 하고, 앞으로 모르는 척 하고 뒤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자이면서도 세상과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반대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신자들은 이 세상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갈등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장사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작별인사 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당신을 따르는 일에만 진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성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살기에 쾌락과 돈과 권력 등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들게 되지요.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티븐 지라드’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그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정상 출근해서 오늘 도착한 선박의 짐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업무에 직원들은 투덜거리며 불평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못마땅해 하며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청년이 지라드 앞에 다가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그만 두게.”

이렇게 청년은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고가 된 후 청년은 3주간이나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다녔으나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게나.”

순간적으로 지라드의 머리 속에는 몇 주 전에 해고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라드가 그 청년을 추천하자 은행 총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은 자네가 해고하지 않았는가?”

“물론일세. 그러나 내가 그 청년을 해고한 것은 사람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네. 주일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해고한 것일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과 원칙을 바꾸지 않던 그 청년은 믿어도 좋은 사람일 걸세.”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의 굳은 믿음은 그를 보증하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 신앙과 세상의 요구에 갈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 것을 결심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만을 따르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주님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특히 교황주일을 맞이하여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교황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삶의 6가지 지침

1. 지쳤을 때는 충전하라.
2.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3.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4. 배운 것을 전달하라.
5.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6.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만한 일들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사도들을 위한 기도

높으신 임금님의 영원한궁전
그안에 함께계신 군주들이여
주예수 몸소말아 가르치시어
세상에 사도들로 보내셨도다

천상의 예루살렘 바라보아라
어린양 빛이되어 밝혀주시고
사도들 초석되어 지어졌으니
빛나는 보석인양 눈부시도다

교회는 주그리스도의 배필이여라
사도들 말씀으로 감화를받고
그들의 흘린피로 축성됐으니
사도들 찬미하며 경축하리라

이세상 마치는날 구세주예수
엄위론 판관으로 좌정하실때
영광에 빛나시는 원로들로서
더없이 크신존경 받으시리라

사도들 끊임없이 전구하시어
우리게 굳센용기 얻어주시고
당신들 열성으로 뿌려진씨앗
하늘의 푸진열매 맺게하소서

사도들 축복하사 간택하신주
성령을 넘치도록 받게하시어
성부의 사도되게 인도하시니
주님께 끊임없는 영광드리세.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작성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강산이 변했을 세월이 지났음에도 저희는 아직 공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성에 젖은 채 그 속에 안주하며 지내 온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에, 본당 신부님께서 사목지침을 정하셨고 이제 그 길에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부터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서부공소인터넷 클럽 '신부님의 성서문답' 개설

'성서 100주간' 공부 중 궁금한 점을 모아 본당 신부님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참고서 형식의 알찬 코너입니다. 현재 많은 문답이 올라와 성서를 알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클럽 가입은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성서 공부 의문사항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 바뇌기도회 :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윤명원 형제 자택

◎ 율뜨레야 모임연기

7월8일 다음주 미사후

◎ 통신교리 모집 안내 (5차)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선교부장 (박재영 바오로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눴고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여름 미사 복장

미사에 참석할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는 삼가 해 주십시오. 단정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석합니다.

◎ 성시간

7월 5일(목)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 성모 신심미사

7월 7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청소년 하계 여름캠프

-일시 : 6월30일(토) ~ 7월2일(월)

-장소 : Orangeville, Sagrada Familia Centre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구회원 모집

예수 성심 성당 축구부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 한옥(에릭) 형제님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아낌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목숨
감사하기에도 모자라는 목숨일진데
그 짧은 인생길에서
언성을 높이지도 말며 서로의 가슴에
못질일랑 그만 거두어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해하는 너그러움으로 살자
즐거워하기에도 모자라는 목숨
서로를 이해하기에도 모자라는 목숨일진데
그 짧은 삶의 길에서
애달은 마음으로 살지 말지니라
누구에게나 한번뿐인 짧은 생을 위하여
슬픈 일일랑은 서로 감싸주고
즐거운 일일랑은 서로 나누어야 하리니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목숨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모자라는 목숨
아낌없는 마음으로 오늘에 살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가자.

- 행복한 중년 중에서 -

미 사 전 레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주님, 주님은 제가 받을 뉘이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8) 불의가 세상을 덮어도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되 장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독 서

7월 1일 박용대 박명옥
7월 8일 정경래 정문진
7월 15일 노동원 노성은

봉 헌

7월 1일 이동기 이정숙
7월 8일 박용대 박명옥
7월 15일 정경래 정문진

천 교

7월 1일 영광팀 7월 8일 장미팀
7월 15일 백합팀 7월 22일 신비팀

2007년 6월 24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30.00
감사헌금:	\$ 100.00
성전건립:	\$ 140.00
Total:	\$ 970.00

2007-26

2007. 7. 1.

연중 제 13주일 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